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이정원**

—<차 례>—

1. 서론
2.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 제재적 가치
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 제재적 가치를 점검하고, 대표적인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에는 각 장르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시와 서사 장르 사이에는 언어적 자질에 대한 구속의 문제가 있고, 서사 장르 내부에서는 세계 반영의 방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에서는 ‘개작’의 원천적인 가능성이 주요한 차이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심청전〉은 세 가지 방향에서 쓰일 수 있다. 먼저 〈심청전〉의 풍부한 대화 상황은 의사소통 교육에 유용하다. 둘째, 〈심청전〉의 중요한 장면들은 사회문화 교육에 유용하다. 셋째, 〈심청전〉은 당위적 권위를 지닌 사회 제도와 개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문학 교육에 유용하다.

이 논문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고전소설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을 두 종류로 제시했다.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논문 집필에 도움을 주신 상하이 푸단대학(復旦大學)의 강보유(姜寶有)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홍종선 교수님, 경기대학교 김서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경기대 국문과

주제어 한국어교육, 문학 작품, 고전소설, 심청전, 한국 문화

1. 서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의 수요 또한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진된다. 첫째는 한국어교육의 지향에서 비롯된다. 즉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지향을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써 사고하고 느끼며 세계 문화 속의 일부분인 한국문화의 가치를 한국어 학습자가 체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의 정립은 외국에서 자국어를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분석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가령, 김대행¹⁾이 소개한 미국 연방정부의 외국어 교육 기준이 대표적이다. 김대행은 미국 연방정부는 외국어 교육의 기준으로서 이른 바 ‘5C’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가 포함된다. 즉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의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좁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언어를 쓰는 공동체의 문화를 접하여 그것이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과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언어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이

1)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미국의 5C기준과 고등학교 한국어반의 문학 교육』, 『한국어교육』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1.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 백인자,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4, 69~70쪽.

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지향이 문화 교육에 맞춰지면서 문학 작품이 지닌 가치도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언어 예술인 문학은 미적 형상화의 수단이 언어라는 점, 그리고 형상화가 언어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 반영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수단으로서 매우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어 교육의 선진국에서 문학 작품을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을 윤여탁이 소개한 바 있는데²⁾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치 있고 권위 있는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문학 작품은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초급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고급스러운 문장을 보아야 하는데 묘사하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을 익히려면 신문, 광고문 등에서 보충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문장을 문학 작품들에서 익히게 된다.

②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문학 작품은 문화적 풍요를 보여준다.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

③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문학 작품 속에는 언어 자료가 풍부하다. 어휘, 표현, 문체 등이 다양하여 학습 대상 언어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유익하다.

④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대상 언어를 통해 상상력의 세계를 넓히어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박성창은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가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가르치는 경우에도 문학 작품의 활용은 매우 '전통적'인 교육 방

2)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1~152쪽.

식이며, 이것은 프랑스어 교육이 ‘싸구려 프랑스어’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³⁾

그러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이다. 문학 작품을 한국어교육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몇몇 개별 작품에 대한 교육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처럼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까닭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한국어교육 연구자의 전공별 편중성 때문이다. 한국어교육이 애초에 ‘어학’ 분야에서 출발하였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문학 작품 활용의 필요성을 교육 현장과 연구 과정에서 절감하면서도 문학 작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융합적 시각’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학 작품 자체의 제재적 특성도 문제가 된다. 문학 작품은 비록 언어로 쓰여졌다고는 하나, 애초에 교육을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기에 교수 학습의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수준 등에 걸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황인교는 문학 작품을 한국어교육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문학 작품의 언어 수준별 내용별 등급화, 그리고 표준 교과과정 개발 등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⁴⁾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개별 연구자나 교수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사업이다. 한국 문학 범주에 대한 거시적인 분류 작업 말고도, 개별 작품에서도 ‘문학적 언어’는 독자의 예술적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어학적 지식’으로 수용되기엔 곤란한 경우가 많다. 비문법적인 문장, 일상적

3) 박성창, 『문학 텍스트와 외국어 교육-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235~253쪽.

4) 황인교, 『한국어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교육』 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283쪽.

의사소통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표현 등이 오히려 문학 작품에서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노리고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핀 것처럼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궁극적 지향이 문화 교육에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학 작품이야말로 고급 언어 표현과 문화 체험의 보고라는 점에서 교육 제재로서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필자는 고전소설 전 공자로서 고전소설 작품이 어떤 식으로 쓰이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논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활용의 세 가지 방향을 전제로 삼는다. 즉 ‘의사소통 교육’,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문학 교육’을 염두에 두고 고전소설 작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⁵⁾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서 먼저 고전소설이 지닌 교육 제재적 가치를 제시하겠다. 기존 논의에서는 문학 일반의 가치나 의의가 많이 따져졌는데, 각 장르별로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예술적 체험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고전소설 작품 중 <심청전>을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여러 작품 중 <심청전>을 선정한 까닭이나 작품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활용하는 까닭 등은 그 자체로 고전소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점이 되므로 본론에서 상술하겠다.

이 논문에서 활용하는 <심청전>은 ‘완판 71장본’이다. 여러 이본들 중에서 완판 심청전이 대화가 풍부하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텍

5)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거듭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대체로 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여탁(2003)의 논문을 참조.

스트여서 이를 선정했다. 정밀한 이본론이나 문학 텍스트 연구가 아니므로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로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활자화한 것⁶⁾을 대본으로 사용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 제재적 가치

한국어문화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가치가 널리 인정됨에도 교육 제재로서 활용되는 양상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⁷⁾으로서 문학 작품이 ‘수준별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흔히 거론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나, 문학 작품의 언어 수준별·내용별 등급화가 필요하다는 주장⁸⁾은 모두 이런 원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해 등급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문제는 문학 장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물론 아예 한국어 어휘나 문법 등을 모르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소설을 읽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모든 문학 작품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운여탁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교육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초급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동요나 일상의 언어로 쓰인 이야기 문학 작품도 효과적인 것이다.⁹⁾

6) 정하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3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7)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기능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1, 409~434쪽.

8) 황인교, 앞의 논문, 2007, 283쪽.

한편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수준별 학습’의 체제에 묶어두려는 시도가 정말로 효율적인지 의심스러운 면도 있다. 최소한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언어’를 소박한 수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격하시키고¹⁰⁾,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학습자의 정체를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려는 언어는 문화로부터 유리된 투명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동체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배울 때에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문화적 역량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정 어휘나 문법 등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을 결부시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런 경우 여전히 문학 작품의 제재적 우수성은 간과될 수 없다. 또한 학습자는 언어 교육에서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언제나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을 지향하는데,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인격적 기반으로서 모국어로 이루어진 사회문화와는 다른 사회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러한 교섭은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 욕구를 전제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에 부응할 것이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적 성숙의 중요한 수단이다. 외국어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의 호기심과 학습 흥미를 그의 인격적 욕망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이 경우 문학 작품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육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 윤여탁, 앞의 논문, 2003, 141쪽.

10) 윤여탁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지향을 위해서는 언어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생활 한국어 또는 소박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원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언어 개념이 아니라 사고, 문화, 전통 등과 결부된 언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여탁, 앞의 논문, 2003, 148쪽.

요약하자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학습자의 학습 정도에 따라 중급 이상에서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세 가지 사유 때문이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된 문학 작품도 있다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다. 둘째, 수준별 학습은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를 여전히 소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이해하여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에 맞지 않는다. 셋째, 학습의 원천적인 동기는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거한 한국어교육은 이에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여러 교육 방향은 단계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소설이라는 장르는 교육 제재로서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예술적 체험의 대상과 과정이 다르다. 시 장르는 형상화의 제재인 언어의 음성학적 자질이 예술적 체험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능을 한다. 소리의 성질이나 장단, 끊어 읽는 단위 등이 모두 예술적 체험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시적 허용’은 언어의 일상적 용법을 초월하여 예술적 체험을 유도하는 표현인데, 이는 시 장르에서 예술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설 장르는 이와 다르다. 소설 텍스트에서 이른 바 ‘서술’과 ‘스토리’의 상대적 분리가 주목된다. 즉 시에서는 대상 텍스트를 ‘읽는 행위’ 자체가 예술적 체험의 과정이지만, 소설에서는 대상 텍스트를 읽으며 이야기세계를 ‘추상하는 행위’가 예술적 체험의 과정이다. 물론 소설에서도 서술의 호흡이나 문체 등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도 서술된 언어의 음성학적 고유성이나 수사적 독창성이 미적 대상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르 고유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적 체험과 대상과

과정의 차이는 매체 전환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흔히들 ‘시’는 번역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시 텍스트의 창작된 언어와 예술적 체험 사이의 고착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하면 소설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도 충분히 원래 언어에 버금가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야기세계의 추상이 예술적 체험의 전부는 아니기에 번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래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에 무지하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설에서 언어 고유의 음성적 실현 여부나 수사적 묘미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는 소설 텍스트가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각색될 수 있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이는 소설 텍스트의 수용이 언어적 조건보다는 이야기세계를 매개로 하는 문화적 조건에 더 관여되기 때문이다. 즉 ‘서사’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소설에서 각색은 치명적인 일이 아니게 된다. 물론 이때 예술적 형상화 도구로서 언어와 영상의 차이, 구체적으로는 서술자의 존재를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지만, 서사라는 공통 영역을 매개로 소설이나 다른 장르 사이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소설이 예술적 형상화에 있어서 언어를 중요한 매체로 삼으면 서도 그로부터 상당한 수준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은 한국어교육에서 의미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시와 달리 소설 텍스트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매체 텍스트와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윤이상 작곡한 독일어 오페라 <심청>이나 우리나라의 유니버설발레단이 공연하는 발레 <심청>¹¹⁾의 감상은 문학 작품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외국인이라도 자국어로 된 <심청전>을 감상

11)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발레 <심청>을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공연하여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이를 다시 한국에서 공연했다. 2013.05.09~2013.05.12,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 뒤, 다시 한국어로 된 <심청전>을 보게 되면 학습 흥미와 수월성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감안하여 교안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사를 매개로 다른 매체와 복합적인 교육 활동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사 장르 텍스트의 활용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가령 시나 수필 등은 오직 언어 텍스트 전체로서만 활용될 때 그것의 문학적 가치가 온전히 보전된다면, 서사 장르는 상대적으로 ‘전체성’ 면에서 자유롭다. 즉, 외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 <춘향전>을 보고, 다시 소설 <춘향전>의 한 대목을 본다고 해도 그 부분이 작품 전체에서 갖는 의의를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상태에서 학습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부분을 교육 제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서사 장르라도 소설은 향유의 방식과 내용 면에서 설화와 구별된다. 설화나 소설은 모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서사적 형상화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만, 설화는 구전을 통해 전승되고 향유되기에 쓰이는 언어가 단순하다. 이에 비하면 소설은 문자로 향유되기에 보다 구체적이며 복잡하다.¹²⁾ 설화 문학 텍스트가 다루는 내용도 소설에 비하면 당대 사회의 문화적 조건을 형상화하는 정도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같은 전쟁 체험을 다루었다라도 설화가 행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이에 따라 특정한 환경에 처한 인간의 심리가 보다 부각된다. 그래서 설화에서의 주인공은 단순히 행위의 주체로서 부각되는 반면, 소설에서는 현실의 인간과 닮은 고뇌

12) 물론 장편 구술 서사시의 경우처럼 구비문학에서도 소설 못지 않게 복잡하고 구체적인 텍스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그러한 특성을 구술 장르의 보편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존재이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설화와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설화는 쓰이는 어휘가 쉽고 다루는 내용이 소설보다 현실 반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콩쥐 팥쥐>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신데렐라>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학습자가 친근하게 여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설에 비해 이야기가 짧기에 학습자의 부담도 덜하고, 비교문학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에 비하면 소설은 쓰이는 어휘가 보다 다양하며, 작가의 문체적 특질도 있어서 고급 학습자에게 더 적합하다. 반면에 현실 반영성이 매우 밀도 있기에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유리하다. 인물의 정체도 소설에서는 현실의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고뇌를 피력하는 존재이기에 한국어교육의 여러 방향을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데에 유리하다.

한국어교육에서 소설 장르가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또한 차이가 있다. 문학 양식 면에서 둘 사이의 차이도 상당하지만, 특별히 한국어교육의 교육 제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작’의 문제이다. 즉, 현대소설은 ‘작가’에게 텍스트 생산의 배타적 권리와 권위를 부여하여 특정한 목적에 따른 개작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즉,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또는 작가에 의한 개작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래의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고전소설은 ‘이본’ 개념에 따라 개작의 문제가 열려 있다. 애초에 <춘향전>은 하나의 작품군에 대한 명칭이지 특정한 이본에 대한 명칭은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에 생산된 여러 <춘향전>들 또한 <춘향전>의 이본으로 취급된다. 작품관에 따라 잘된 이본도 있고 못된 이본도 있을 수 있지만 <춘향전>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받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개작에 대한 포용력이 한국어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지대

하다. 앞서 문학 작품의 활용에서 작품의 ‘난이도’나 ‘수준’이 매우 문제시 되었는데, 고전소설의 경우 기본 서사만 유지한다면, 작품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춘향전>에 대해 초등학생용부터 전문 연구자용까지 다양하게 이본이 존재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개작에 대한 포용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학습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춘향전>에서 방자와 이도령의 대화는 격식체 높임법으로 구사될 수도 있고, 비격식체 높임법으로 구사될 수도 있다. 학습 목표에 따라 제시문의 변화가 자유로운 만큼 고전소설은 교육 제재로서의 활용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 ‘고전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 가치 있고 유리하다. 가령 ‘놀부 보쌈’이라는 상호는 <흥부전>의 고전적 지위에 의존하여 출현했다. 현대소설의 명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소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오랜 세월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은 고전소설 작품의 문제의식이나 등장인물을 문학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은 독자적인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는 데에 여러 문학 장르들이 지닌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시와 서사 장르 사이에는 언어적 자질에 대한 구속의 문제가 있었고, 서사 장르 내부에서는 세계 반영의 방식과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에서는 ‘개작’의 원천적인 가능성이 주요한 차이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심청전>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이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 <심청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러 방향에서 제시해 보겠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는 세 가지 교육 방향, 즉 의사소통 교육, 사회문화 교육, 문학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진행 하겠다.

<심청전>이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문학 작품으로서의 대표성과 한국어교육 제재로서의 함량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한국어교육에서 <심청전>의 활용 가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사소통 교육 측면에서 <심청전>은 다양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상황이 들어 있다. 널리 알려진 <심청전>의 대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화자	대화 내용	관련 어휘
심봉사-심청	심청이가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	마을 장소 지칭어, 심청 옷차림 어휘
심봉사-회주승	심봉사가 회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	불교, 음식 어휘
심봉사-뱃사람	심봉사가 딸을 데려가는 뱃사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	감정 표현 어휘
심청-용왕	심청의 전생을 용왕이 알려주며 환생을 약속하는 장면	세계관 표현 어휘
심봉사-뽕덕어미	뽕덕어미의 행실을 심봉사가 나무라는 장면	행실 표현 어휘

사회문화 교육 측면에서 <심청전>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심청전>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사회 문화적 특징
곽씨 부인 품팔이 장면	가사 노동
곽씨 부인 장례 장면	장례 문화
심봉사가 심청이를 동냥젖으로 키우는 장면	공동체 문화
심봉사가 회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	불교
장승상 태 부인이 수양딸을 제안하는 장면	가족 제도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	효
심청이 연꽃으로 환생하는 장면	세계관
뽕덕어미의 심술 장면	선악의 행실
심봉사 눈 뜨는 장면	잔치

문학교육은 “문학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교육활동”이다.¹³⁾ 이때 문학능력이란 ‘문학의 사실, 개념, 방법, 태도에 대한 앎에 기반하여 신체적·이지적·심미적·기능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¹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그 본래적 지향인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단순한 의사소통 교육이 아니라 문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은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문학교육을 지향함으로써 ‘말하기’ ‘쓰기’의 중요한 교육 제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격적 고양을 지향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부응할 수 있다.

<심청전>은 이러한 문학교육의 지향에 매우 어울리는 작품이다. <심청전>은 작품 전체에 걸쳐서 당위적 권위를 지닌 사회 제도 앞에서 개인

1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4쪽.

14) 김대행 외, 앞의 책, 2000, 35쪽.

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작품의 개별적인 장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학적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장면	문학적 질문
심봉사가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장승상 태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을 제안하는 장면	심청은 장승상태 부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심봉사는 화주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심청이가 뱃사람을 따라 마을을 떠나는 장면	마을사람들이 심청을 만류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용왕이 심청에게 전생을 알려주고 연꽃으로 환생시키는 장면	현실의 행복과 불행을 전생의 업보로 보는 것은 정당한가? 그러한 시각이 갖는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가?
뽕떡어미가 도망치고 심봉사가 슬퍼하는 장면	심봉사가 뽕떡어미를 그리워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로써 알 수 있는 인간의 정체는 무엇인가?
황후 심청이 심봉사를 찾는 장면	심청이가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처럼 <심청전>은 의사소통 교육, 사회문화 교육,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작품이다.

기존에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고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작품 전체를 감상한 뒤 학습에 필요한 장면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제시할 수 있다. 가령, 외국어로 번역된 소설작품이나 만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작품 전체를 이해한 뒤 학습 내용을 감안하여 개작된 구체적인 장면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몽운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을 개작의 수준을 달리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쉬운 한국어>

이때 심봉사는 빈 방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은 좁고 배도
고팠다.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로 안 올까?’

심봉사는 심청이를 걱정하였다. 그러다가 심청이를 만나러 나갔다. 심봉
사가 지팡이를 짚고 길에 나섰다가 그만 개천에 빠졌다. 심봉사는 허우적거
리며 외쳤다.

“사람 살려!”

이때 마침 몽운사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 소리를 듣고 개울
에 달려들었다. 상투를 잡아 구해놓고 보니 심봉사였다. 심봉사가 정신을 차
리고 물었다.

“아이쿠, 고맙습니다. 누구시요?”

“몽운사 중이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심봉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심봉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
자, 스님이 말했다.

“우리 절 부처님께 쌀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텐데!”

심봉사는 이 말에 깜짝 놀라 말했다.

“그게 정말이요?”

“그럼요. 하지만 당신은 가난하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심봉사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쌀 삼백 석을 내겠으니, 그리 아시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심봉사와 약속하고 돌아갔다.

스님이 떠나고, 심봉사는 후회했다.

‘부처님을 속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어떡하단 말이나?’

심봉사가 울고 있을 때, 심청이 돌아왔다.

“아버지, 왜 울고 계십니까?”

심봉사가 부처님께 약속한 것을 말했다. 심청이는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

로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더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공양미를 마련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한국어>

이때 심봉사는 홀로 앉아 목이 빠지게 심청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배가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먼데 절에서 북치는 소리가 들리니 날이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심청이는 무슨 일로 날이 저무는 줄 모르는고, 오는 길에 동무를 만나 놓고 있나?’

이웃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심청이 오느냐?”

심봉사가 외쳤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심봉사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지팡이를 짚고 문밖을 나섰다. 개천을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어 개천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마침 이때 몽운사 화주승이 시주를 다니다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웬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장삼을 벗어 놓고 누비 바지도 벗어 놓고 심봉사에게 달려들었다. 겨우 물에서 건져 놓고 보니 심봉사였다. 심봉사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게 뭐시요?”

“몽운사 화주승이요.”

“아이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니 백골난망입니다.”

화주승이 심봉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물에 빠진 까닭을 물었다. 심봉사가 신세를 자탄하며 이야기를 하니, 화주승이 심봉사에게 말하였다.

“불쌍하오.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하여 못 고치는 병이 없사오니,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꼭 뜨오리다.”

심봉사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러면 삼백 석을 시주하리다.”

화주승이 허허 웃더니,

“이보시오. 댁의 가세를 보니 무슨 수로 삼백 석을 내겠소?”

심봉사가 활김에 말하였다.

“여보시오, 어느 누가 부처님께 빈말을 하겠소! 눈 뜨려다가 앓은뱅이 되
게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염려 말고 적으시오!”

화주승이 심봉사의 약속을 적고 가자, 심봉사는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복을 빌려다가 죄를 짓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이하리!’

이 설움 저 설움이 때를 지어 일어나니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운다.

“애고 애고 내 팔자야. 나는 무슨 일로 맹인이 되어 해와 달을 분별치 못
하고, 처자식마저 보지 못하는가. 죽은 처가 살았던들 어찌 어린 자식을 구
걸하러 보내리오. 공양미 삼백 석을 기세 좋게 적었지만, 아무리 생각한들
마련할 길이 없구나. 장농을 탈탈 털어도 염전 한 닢이 없고, 이 몸을 팔자
해도 늙은 봉사를 누가 사리오. 아이고 내 팔자야!”

한창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심청이가 바삐 들어와서 아버지의 행색을 보
더니 깜짝 놀라 말을 한다.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나를 찾아 나오셨다가 이 봉변을 당하셨소? 오
죽 추우며 오죽 시장하셨소?”

심청이가 얼른 진지를 마련하여 아버지께 드리었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국물 먼저 드십시오.”

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가르치며,

“이것은 김치요, 이것은 자반이요.”

심봉사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밥 먹을 뜻이 전혀 없다.

“아버지, 웬일이요? 어디 아파 그러시오, 내가 더디 왔다고 노하셨소?”

“아니로다. 네가 알아 쓸데없다.”

“아버지, 그제 무슨 말씀이요? 부모 근심은 곧 자식 근심인데, 제가 아무
리 불효자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웁니다.”

심봉사가 그제야 말을 한다.

“내가 무슨 낮이 있어 너를 속이겠느냐. 네가 알면 네 마음만 무거워지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실은 아까 너를 찾아 나섰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몽운사 화주승이 구해주지 않았느냐. 화주승이 나를 보고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하길래, 내가 덩석 시주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말았단다. 훗김에 적었으나 무슨 수로 공양미를 마련한단 말이냐.”

심청이가 반갑게 듣고 부친을 위로한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주세요. 후회하면 부처님께 진심이 못되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쓰든 공양미를 마련하여 몽운사로 올리겠습니다.”

<심청전>의 한 대목을 두 가지 다른 수준으로 개작하여 소개하였다. 쉬운 개작본과 어려운 개작본을 가름하는 기준으로써 문장의 길이, 형태, 어휘의 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개작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청전>은 학습 목표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개작할 수 있다. 가령, 쉬운 개작본에서 “이때 심봉사는 빈 방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첫 문장은 어려운 개작본에서는 “이때 심봉사는 홀로 앉아 목이 빠지게 심청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로 표현되었다. “이때 심봉사는 빈 방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문장도 “심봉사는 딸을 기다렸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로 더 단순한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목이 빠지게”와 같은 관용적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심청전>에서의 개작은 한국어교육의 지향을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쉬운 개작과 어려운 개작 모두 심봉사가 화주승에게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갈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사소통 교육의 목적에 따라 표현을 섬세하게 조절하면서도 사

회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여전히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심봉사는 무엇을 왜 걱정하는가?’나 ‘심청이는 어떻게 심봉사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와 같은 사회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성은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에서 서술과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인 장면의 활용도 자유롭다. 가령, 심청이 심봉사의 식사를 돕는 장면은 쉬운 개작본에는 없고 어려운 개작본에는 들어가 있다. 학습 목표에 따라 이 장면은 쉬운 개작본에 넣을 수도 있는데, 식사 과정이나 반찬의 종류 등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개작의 용이함은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에 비해 단순히 쉬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4. 결론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 제재적 가치를 점검하고, 대표적인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 제재적 가치를 검토하면서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어떤 수준의 학습자에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만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 가지 사유 때문이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된 문학 작품도 있다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다. 둘째, 수준별 학습은 외국어 교육에

서 언어를 여전히 소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이해하여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에 맞지 않는다. 셋째, 학습의 원천적인 동기는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거한 한국어교육은 이에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여러 교육 방향은 단계적이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소설 장르의 특징은 한국어교육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서사 장르는 서정 장르와 달리, 예술적 체험 과정에서 언어의 음악성 또는 음성학적 자질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 또한 서사 장르는 ‘서술’과 ‘스토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한국어교육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서사’를 매개로 다른 매체와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하다. <심청전>을 자국어로 번역된 영화로 먼저 감상한 뒤, 한국어로 된 소설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성’ 면에서 자유롭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전체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상태에서 학습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부분을 교육 제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서사 장르 내부에서도 소설과 설화는 구별된다. 설화가 쉬운 어휘로써 세계 보편적인 친근한 내용을 다룬다면, 소설은 보다 다양한 어휘로써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도 차이를 보인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 ‘개작’의 용이함이 있고, ‘고전적 성격’ 때문에 한국사회의 보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유리하다.

한국어교육에서 <심청전>의 활용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먼저 의사소통 교육의 측면에서, <심청전>은 다양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소개할 수 있는 풍부한 대화 상황이 들어 있다. 가령 심봉사-심청, 심봉사-회주승, 심봉사-뱃사람, 심청-용왕, 심봉사-뽕덕어미 등 다양한 성격의

화자들이 흥미롭고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이들 장면들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개작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 교육 측면에서, <심청전>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 제도를 소개할 있는 중요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가령 광씨 부인의 품팔이 장면, 심봉사 심청이를 동냥젖으로 키우는 장면, 뽕덕어미의 심술 장면 등등은 가사 노동, 공동체 문화, 공동체 윤리 등에 대해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셋째,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심청전>은 학습자의 말하기, 쓰기 훈련을 위한 중요한 교육 제재가 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인격적 교양에 기여한다. <심청전>의 주요 장면들에서 학습자는 인간세계에 대한 상투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낯설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고전소설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하는 장면을 두 종류로 제시했다. 즉, 문장의 길이, 형태, 어휘의 수준을 다르게 하여 쉬운 개작본과 어려운 개작본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작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고전소설은 학습 목표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개작될 수 있다. 둘째, 고전소설에서의 개작은 한국어 교육의 지향을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셋째, 고전소설 작품에서의 개작은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부수적인 장면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학 활용 방안」, 『민족연구』 47, 한국민족연구원, 2011, 63~80쪽.
- 김경희, 「문학을 활용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재 개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3/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09, 1~25쪽.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서형, 「영화를 활용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 -교육용 영화 선정의 원리와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 161~187쪽.
- 김수진,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 -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1~58쪽.
- 김종철, 「한국어교육과 문학의 연관성 탐색 ;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제재 활용의 전통」,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185~212쪽.
- 김혜영, 「문학교육과 언어적 상상력」,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2009, 577~609쪽.
- 박배식, 「한국어 문학교육의 실행 방안」,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11~336쪽.
- 박성창, 「한국어교육과 문학의 연관성 탐색 ; 문학 텍스트와 외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235~253쪽.
- 박숙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학제재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105~123쪽.
- 백인자,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4, 61~83쪽.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국어교육연구소 · 언어교육원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2』, 아카넷, 2012.
- 서유경, 「국어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2007, 131~161쪽.
- _____, 「문학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 -<토끼전>의 어족회의 대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4, 1~24쪽.
- 송명진, 「현대소설과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시학과 언어학』 18, 시학과 언어

- 학회, 2010, 139~162쪽.
-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9,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77~100쪽.
-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3, 279~303쪽.
- _____,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307~331쪽.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101~126쪽.
- 양정실, 『문학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105~124쪽.
- 우혜경, 『문학지문을 활용한 다문화 중학생의 한국어교육』,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583~610쪽.
- 유성호, 『제도로서의 문학교육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577~596쪽.
- 윤여탁,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 다문화사회: 한국문학과 대중문화의 대응』, 『국어교육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3~24쪽.
- _____,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1~152쪽.
- _____,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과제 - 교육과정, 교재, 외국인 문학교육론을 통한 투시』,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 123~144쪽.
- _____,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67~146쪽.
-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53~171쪽.
- 이성희, 『영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수, 학습의 실제 -“상호문화능력 신장”과 “개인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153~182쪽.
- 이현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 -설화를 통한 초급 과정 문학 교육』,

-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391~413쪽.
- 장문정, 「한국어 문학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요구 분석」, 『이중언어학』 36, 이중언어학회, 2008, 345~369쪽.
-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37~266쪽.
-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1, 409~434쪽.
- ,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학 수업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4, 231~280쪽.
- ,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교육』 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273~299쪽.

ABSTRACT

A Utilization of Simcheongjeon for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Lee, Jeong-won

I intend to present the educational worthy of Old Korean Novel and the utilization of Simcheongjeon for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We must consider the features of each genres in using literature text for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Poetry has the matter of linguistic restrictions, but narrative do not. In narrative genre, folktale and novel are different in the way and the contents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real. In addition, the modern novel and the old novel are different in the possibility of being rewritten.

Simcheongjeon would be used for three ways in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irst, a lot of dialogues in Simcheongjeon can be used for the education of communication. Second, the important scenes in Simcheongjeon can be used for the education of sociocultural education. Third, there are the inevitable confliction between social norm which one should follow and a individual in Simcheongjeon, and it can be used for the education of literature.

I present two versions of Simcheongjeon, one is easy and the other is difficult. It shows that Old Korean Novel could be read in different levels.

Key Words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text, Old Korean Novel, Simcheongjeon, Korean Culture.

논문투고일 : 2013. 04. 12

심사완료일 : 2013. 05. 29

게재확정일 : 2013. 06. 02